

대구시, 2045년까지 TK신공항 품은 '군위하늘도시' 조성

메디컬센터, 항공고등학교 등 유치 용도 지정 유보된 화이트존 조성 1070만㎡, 인구 14만명 규모 예정

대구경북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을 에어시티로 개발하는 종합 계획안이 나왔다.

대구시는 9일 '군위하늘도시' 청사진을 발표했다. 군위하늘도시 계획은 'Central Hub of Air City'를 비전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친환경 청정도시, 편리한 생활 인프라,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4대 전략에 따라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주축이 되는 메디컬센터 건립, 항공산업에 특화된 항공고등학교, 국제학교 유치 등이다. 또 미래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 지정이 유보된 화이트존(White Zone)도 별도로 조성한다. 개발사업은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군위하늘도시는



군위 하늘도시 예상도.

전체 면적 1070만㎡에 계획인구 14만명 규모로 제1,2첨단산업단지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25만 군위시대를 이끌 핵심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 대상 면적은 전체 325만 평 규모로 신공항 활성화와 장래 수요를 감안해 2단계로 나누어 204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1단계 사업은 490만㎡, 약 2만 세대 규모를 갖고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약 75만㎡, 5000세대의 주거단지를 우선

조성한다. 이후 2034년까지 주거, 상업, 산업, 교육, 의료시설 등 우수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신공항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580만㎡ 규모로 공항 활성화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2045년까지 개발한다.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군위하늘도시의 경제적 과급효과

는 생산유발효과 약 1조 74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000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1만 2700명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군위하늘도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군위읍 시가지, 의성신도시, 군위첨단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체육시설이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인 위천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는 등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중앙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 국토내륙의 거점도시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계적인 공항은 그 위상에 걸맞은 배후 신도시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TK신공항을 품은 군위하늘도시는 단순히 공항을 지원하는 기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관문 도시로 자리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skim@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흥군-전남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맞손'

고흥군은 지난 6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권형선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 및 교환식과 함께 지난 4년간의 성과 공유 및 고흥 교육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자치협력지구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1 대응투자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 및 마을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사업이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 스탬프투어' 성료

고창군과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공동 기획·운영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 스탬프투어'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스탬프투어는 세계유산 7가지 보물과 관련된 관광지(관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전봉준 장군 동상, 농악전수관, 운곡습지, 선운산, 람사르조창갯벌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운영했다.

온라인 미션 완료자는 20명 추첨을 통해 마그네틱 5종 또는 스노우볼 등을 선물로 받았다. 오프라인 미션 완료자 전원에게는 뱃지 7종, 우산, 텀블러 에코백 등을 지급했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울산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울산시 울주군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기존 과태료 2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했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85억 지급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1.4만곳 지급 전국 총 210억의 52% 규모

전라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0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5억 원을 확정하고, 직불금 총 1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1만 400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 9000ha로, 110억 원(국비)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 원의 52% 규모이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7만 원이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다.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계는 논은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



전라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0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5억 원을 확정하고, 직불금 총 1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소·특작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친환경(유기농·무농약) 지속 인증 농지로서 지급 면적은 약 1만 5천ha로, 1만 3천여 농가에 75억 원을 지급한다.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정부 예산 319억 원으로 확대 반영되면서 전남은 올해 110억 원 대비 73억이 증액된 183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세부 내용은 논 직불 단가를 ha당 유기기는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 등으로 인상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셔틀버스 무료운행

오늘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경주시는 10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4개월간 보문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행은 경주가 스마트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으로, 보문관

광단지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율주행차량을 도입할 것이다.

순환노선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B형 자율주행차량 1대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힐튼호텔 ▲동궁원 ▲경주월드 등을 포함한 9.4km 순환 구간을 하루 6회 운행한다.

/경주(경북)=최지영 기자

포항시, 지역경제·민생 지키기 '총력'

지역 민생 안정 특별대책 설명철강 등 주력산업 위기 극복

이강덕 포항시장(사진)이 경제가 어렵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사회갈등 최소화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연말연시 '지역 민생 안정 특별대책'을 설명하며, 시민·사회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각종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9일부터 부시장을 총괄로 지역안정, 민생경제, 취약계층, 경기활성 대책을 위한 '지역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즉시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특히 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



제와 민생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국내 기업 의무할당제, 전기료 인하 등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과 함께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2,000억 원 조성, 포항사랑상품권 2,000억 원 규모 발행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의 선제적·공격적 투입으로 경제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경북)=최지영 기자 asdadx@

부산시, '우수 착한가격 업속' 4곳 선정

행복순두부, 남경, 청춘탕수육 등

부산시는 물가안정에 모범이 되는 관내 업소 4곳을 올해 '우수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업 중 지역의 타 업소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부산에는 지난 9월말 기준 총 690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구·군 추천과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우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했다. 이들 업소는 가격 외에도 위생, 사회봉사 등 여러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4곳은 ▲행복순두부(동래구) ▲남경(사하구) ▲청춘탕수육(중구) ▲헤어클릭 제이앤드제이(기장군)다.

이들은 각각 순두부 6000원, 짜장면 4000원, 짜장면+탕수육 7000원, 헤어컷트 5000원 등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한마당

경남도는 '2024년 경남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한마당' 행사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롯데몰 진주점 앞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도내 13개 시·군 30명의 농업인이 생산한 사과, 배, 단감 등 신선 농산물과 쌀, 연잎밥, 딸기청, 장아찌 등과 같은 가공식품 100여 개 품목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행사기간 동안 선착순 340명에게 쌀, 떡국떡, 잡곡 등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남=이도식 기자